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타당화

오 지 현¹⁾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를 타당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앞선 예비연구를 통해 예비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첫 번째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3요인, 36문항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감정코칭 반응, 감정무시 반응, 과민 반응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의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연구대상과 다른 집단의 중학생 506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해 이전 요인분석에서 밝힌 요인구조의 적합성과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준거관련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정서조절 방식과 탄력성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문제행동 성향이 높은 집단과 비교집단을 구분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가 문제행동 성향 집단을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α 값이 .84에서 .9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의 문항-하위 척도 총점 간 상관도 모든 문항이 .30이상을 보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타당성이 확인되었고 이는 청소년기 자녀 양육 시 모-자녀 간 정서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정서사회화,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감정코칭 반응, 감정무시 반응

1) 교신저자 :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연구원 (E-mail : maple282@nate.com)

I. 서론

과거에는 정서를 생물학적, 개인적, 주관적, 내적인 상태로 인식하였다(Barrett & Campos, 1987; Frijda, 1986). 최근에는 정서를 한 개인이 사건의 의미를 내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조절하며 환경에 반응하는 행동으로 정의한다(정옥분, 정순화, 임정하, 2007). 이는 정서의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정서를 사회적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발달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인간의 다른 측면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정서적 특성 또한 개인 내 기질적 소인과 외적 환경의 두 측면이 모두 작용하나 정서적 특성은 사회관계적 맥락에서 경험되고 조절되는 과정을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외적 환경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노지영, 정윤경, 2010). 이러한 추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이를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학습하는 정서 사회화에 주목하고 있다(이강이, 최인숙, 성미영, 2007; Eisenberg, Cumberland & Spinard, 1998).

Eisenberg 외(1998)는 정서사회화 과정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면서 정서관련 양육행동에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부모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란 일상생활에서 자녀에게 부모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자녀와 정서적 대화를 나누며 자녀의 정서에 대하여 반응하는 태도를 말한다. 특히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아동의 정서사회화에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서정, 2004; 이강이 외, 2007; Eisenberg & Fabes, 1994;

Gottman, Katz & Hooven, 1996).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은 다양한 감정 또는 정서의 표출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Kring, Smith & Neale, 1994), 자녀가 긍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보다는 슬픔, 두려움,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경우에 부모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Siegel & Hartzell, 2004). 또한,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정서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도 긍정적 정서보다 더 중요성이 강조된다(Dunn, Brown & Bearsall, 1991). 예를 들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을 감소시켜 정서조절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반면, 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적응력 있고 유능한 사회적 행동 유형이 발달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Fabes, Leonard, Kupanoff & Martin, 2001; Fabes, Poulin, Eisenberg & Madden-Derdich, 2002).

상기한 바와 같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자녀의 정서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이 높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영·유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박서정, 2004). 반면, 최근 청소년들의 일탈적인 행동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청소년기의 정서사회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기의 취약한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은 집단따돌림 및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기 때문이다(김봉년, 2012). 그러므로 초기 청소년기의 정서사회화 능력을 증진시켜주기 위한 탐색적 연구의 필

요성을 시사한다.

발달특성상 혼란스럽고 부정적 정서를 빈번하게 경험하는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 간에는 정서적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러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자녀의 정서사회화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Gottman, 1997; Gottman & Nahm, 2007). 이는 사춘기에 접어드는 자녀가 경험하게 될 불안감과 혼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바람직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비지지적 반응을 보일 경우 자녀의 문제 행동 및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Katz & Hunter, 2007; Shortt, Stoolmiller, Smith-Shine, Eddy & Sheeber, 2010). 그리고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가족 내에서 기능적이고 지지적 반응을 많이 하는 부모일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있다(Klimes-Dougan et al., 2007; Stocker, Richmond, Rhoades, & Kiang, 2007). 또한, 공감적인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정서표현을 격려하고 이는 자녀의 자기존중감과 건강한 자기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rayer & Robers, 2004; Trumpeter, Watson, O'leary, & Weatherington, 2008).

이렇듯 초기 청소년의 분노, 슬픔,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청소년기의 정서사회화 및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고 영유아기에 비해 주목을 덜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자녀의 발달시기에 따라 부모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다른 의미, 다른 영향을 가질 수 있다는 연구(Eisenberg et al., 1998)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발달시기에 따라 차이를 살펴 본 박광향(2009)의 연구에서 유아기와 아동기 간에 어머니 반응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난 결과를 통해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연구에 있어서 발달시기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조작적 정의는 동일하더라도 이를 구성하는 요소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즉, 아동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응 유형이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를 타당화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앞선 예비연구(조유진, 오지현, 2012)를 통해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대한 구성요소를 살펴보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예비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제한점을 보완하고 이에 대한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여 척도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즉, 다양한 측면의 타당도 검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AERA, APA와 NCME(1999)에서 규정한 내적구조에 기초한 근거(Evidence based on internal structure), 다른 변수와의 관계에 기초한 근거(Evidence based on relations to other

variables), 검사결과에 기초한 근거(Evidence based on consequences of testing)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내적구조에 기초한 근거는 구인타당도(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다른 변수와의 관계에 기초한 근거에서는 준거관련 타당도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우선,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에 반응하는 방법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양육반응성을 파악할 수 있는 태도로써 일반적인 양육방식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점(Zelman & Shipman, 1996)을 토대로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공인 근거를 검증하고자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서혜린, 이영, 2008; Eisenberg & Fabes, 1994; Goleman, 1995; 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Yap, Allen & Ladouceur, 2008)과 사회성 발달 및 적응적 행동(Fabes et al., 2001; Fabes et al., 2002)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통해 준거관련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는 본 척도가 초기 청소년의 적응력 있는 정서·사회적 능력의 발달을 예측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정서적 능력을 측정하는 정서조절 방식(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과 긍정적인 사회적응 능력을 측정하는 탄력성(resilience)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문제행동 성향 집단과 비교집단

을 구분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가 문제행동 성향 집단을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활용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통해 부모교육 및 임상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측정도구임을 입증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향후 초기 청소년기의 정서사회화와 관련한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타당도 관련 증거는 적절한가?

1-1.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구인타당도는 어떠한가?

1-2.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준거관련타당도는 어떠한가?

1-3.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집단 간 변별타당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신뢰도 관련 증거는 적절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1차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타당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발달적 변화로 인한 부정적 정서경험이 많으며 이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강조되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1,2,3학년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초기 청소년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청소년 행동평가를 위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초기 시점이 만 11~12세로(Achenbach, 1991), 우리나라 연령대에서는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오경자,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 2001). 또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분노조절 및 공격적 일탈 문제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고(문용린, 2008;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2011), 심리행동 특성 및 학업 등의 여러 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밝힌 연구들(김의철, 박영신, 2008)을 고려하여 중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문항 질문지를 서울 및 인천 지역의 중학교 5곳에서 1, 2, 3학년들을 대상으로 총 540부를 배포하였고 이중 520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질문에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498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1차 조사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498)*

구 분		n (%)
성별	남	246(49.4)
	여	252(50.6)
학년	중학교 1학년	179(35.9)
	중학교 2학년	160(32.1)
	중학교 3학년	159(31.9)
가족 관계	부모 모두 계신다	487(97.8)
	어머니만 계신다	11(2.2)
어머니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이하	13(2.6)
	고등학교졸업이하	296(59.4)
	전문대 졸업	20(4.0)
	대학교 졸업이상	169(33.9)
어머니 연령	40세 미만	93(18.7)
	40 ~ 50세 미만	341(71.5)
	50세 이상	64(12.9)

2차 조사 대상

본 연구의 2차 조사는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1차 조사의 표본과는 상이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중학교 5곳에서 1, 2, 3학년들을 대상으로 총 550부를 배포하였고 이중 530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질문에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506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 2차 조사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506)*

	구 분	n (%)
성별	남	244(48.2)
	여	261(51.6)
학년	중학교 1학년	174(34.4)
	중학교 2학년	164(32.4)
	중학교 3학년	167(33.0)
가족 관계	부모 모두 계신다	494(97.6)
	어머니만 계신다	12(2.4)
어머니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이하	14(2.8)
	고등학교졸업이하	322(63.6)
	전문대 졸업	20(4.0)
	대학교 졸업이상	150(29.6)
어머니 연령	40세 미만	79(15.6)
	40 ~ 50세 미만	381(75.3)
	50세 이상	46(9.1)

2. 측정도구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허묘연(2004)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감독,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방치, 학대, 애정 등의 8요인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유진(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 분석을 기초로 9개 문항을 제외한 후 사용하였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총 3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각 요인 별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 유형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각 하위요인 별 문항과 신뢰도

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정서조절 방식 척도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정서조절방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윤석빈(1999)이 개발하고 임전옥(2003)이 타당화를 실시하여 보완한 정서조절 방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문항 수는 25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고 능동추구 방식, 회피분산적 방식, 지지추구 방식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주연, 이윤아, 이기학(2005)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전옥(2003)의 연구와 동일한 요인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서조절 방식 문항은 응답자가 부정적 정서(슬픔, 분노, 스트레스 등)를 느낄 때 이를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에 적절한 번호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정서조절 방식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각 하위요인 별 문항과 신뢰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용 탄력성 척도

주소영과 이양희(2011)가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청소년용 탄력성 척도(Resilience Scale for Adolescents: RSA)를 사용하였다. 총 문항수는 27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고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 문제해결능력, 부정적 감정의 인내, 학업적 유능감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력성(resilience)이란 한 개인이 의미 있는 불행한 사건과 역경을 겪게 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역동적인 과정

표 3. 각 척도 별 하위영역과 총점범위, 신뢰도

변인구분	하위영역	총점범위	신뢰도
양육행동	감독	3-12	.67
	합리적 설명	3-12	.72
	비일관성	3-12	.54
	과잉기대	4-16	.78
	과잉간섭	4-16	.71
	학대	6-24	.88
	방치	5-20	.79
	애정	6-24	.84
정서조절 방식	능동적 방식	8-40	.83
	회피분산적 방식	9-45	.75
	지지추구적 방식	8-40	.85
탄력성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	11-55	.85
	문제 해결 능력	6-30	.79
	부정적 감정의 인내	6-30	.80
	학업적 유능감	4-20	.65
문제행동	문제행동 총점	0-126	.95
	내면화 문제 행동	0-62	.92
	외현화 문제 행동	0-64	.91

을 의미한다. 특히, 환경적 변화가 심한 청소년기에 청소년 개개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대처하며 자신의 생활에서 새로운 적응을 해 나가는 사회적 능력으로 정의된다(주소영, 이양희, 2011). 청소년용 탄력성 척도 전체 점수와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과 신뢰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청소년 문제행동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내면화 문제 척도와 외

현화 문제 척도는 청소년의 자기행동 평가 척도(Youth Self Report: YSR)¹⁾의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YSR은 만 11~18세 청소년이 자신의 적응과 정서·행동문제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서 Achenbach(1991)가 개발한 Youth Self-Report를 오경자 외(2001)가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준화 하였고, 이후 미국 YSR의

1) 한국판 YSR은 주식회사 <휴노>에서 판매하고 있는 검사도구로 본 연구자는 연구용 검사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비용을 지불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국내 예비 표준화 과정을 통해 2010년에 개정된 한국판 YSR이 출시되었다. YSR의 각 문항은 청소년 자신이 지난 6개월 동안에 보인 문제행동에 대해 전혀 아니다(0점), 가끔 그렇다(1점), 자주 그렇다(2점)의 3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YSR은 문제행동 척도, DSM진단척도, 문제행동 특수척도, 긍정자원척도로 총 1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 척도에 해당하는 63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그중에 내면화 문제 행동은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 신체적 증상 등 내재화되고 과잉 통제된 행동을 평가하는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외현화 문제 행동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격적인 행동, 싸움, 비행 등 외현화 되고 과소 통제된 행동을 평가하는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3. 연구 절차

예비조사

조유진과 오지현(2012)의 연구에서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척도의 가설적 하위요인을 구성하고 1차 예비문항을 추출하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은 후 문항을 2차 예비문항으로 선정하였다. 2차 예비척도 문항에 대해서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중학생 349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 (1차)

본 연구에서는 예비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제한점을 바탕으로 문항을 수정 또는 보완한

후 아동심리 전문가 6명에게 재평정을 실시하였다. 문항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각 문항이 각 요인의 구성개념에 적합한지, 문장이 간결하고 명확한지, 표현이 적절한지를 ‘매우 적절하다’의 5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1점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전문가 두 명 이상이 문항의 적절성을 3점 이하로 평가한 문항은 삭제하여 최종 문항을 선별하였다. 또한, 점수평정 외에 주관적 평가란에 예비척도에서 명명했던 척도명이 모호하며 대표성을 드러내기 부족하다는 공통된 지적을 받아 수정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예비연구 때와는 상이한 집단과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는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중학생 498명이 참여하였다. 질문지는 각 학교 교사에게 개별연락을 통해 동의를 구한 뒤, 학교에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배포된 질문지는 택배 또는 직접 방문으로 회수하였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양호도 검증을 실시하여 적절한 문항과 요인을 최종적으로 선별하였다.

본 조사 (2차)

다음으로는 2차 조사를 실시하여 요인구조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2차 조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중학생 506명이 참여하였다. 질문지는 1차 조사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배포 및 회수하였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요인구조의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정서조절 방식,

탄력성과의 상관을 통해 준거관련타당도를 확인하였고 문제행동 척도를 활용해 문제행동 집단과 비교 집단을 분류하여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통계프로그램과 AMOS 20.0 프로그램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분석하였다. 탐색적요인분석을 위해 공통요인모형에서 기초 구조의 추출을 위해 주축요인추출(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였고, 요인구조의 회전은 사각회전(direct oblimin)방법을 실시한 결과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해 직각회전(varimax)방법으로 재실시하였다. 이는 이순목(2000)이 제안한 사각회전을 수행한 후 요인 간 상관관계가 낮은 수준일 경우에는 직각회전을 채택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요인분석 후 구성된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하위요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준거관련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 값을 산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구인타당도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에 대한 구인타당도 검증은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하위요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 앞서 예비연구에서는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해 가설적 하위요인을 구성하였고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쳐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예비문항들의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는 문항 분석을 통해 문항의 적절성을 알아본 후 선정된 문항으로 중학생 349명에게 예비조사를 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으나 문항양호도와 신뢰도 측면에서 부적절한 문항들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척도에 대한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문항 수정 후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재검증 과정을 거쳐 문항을 선별한 척도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로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1단계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KMO(Kaiser-Meyer-Olkin)의 측정치를 알아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치를 산출하여 요인분석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였다. KMO수치는 문항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표본의 상관행렬이 요인분석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표 4.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문항 내용 및 요인부하량

예비문항번호	문항내용	요인		
내가 부정적 정서(화, 짜증, 불안, 슬픔 등)를 겉으로 드러내거나 이와 관련한 얘기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나의 어머니는.....		1	2	3
22	내가 스스로 진정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72		
43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조언을 해주신다	.72		
29	내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조언을 해주신다	.70		
15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70		
46	내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게 응원을 해주신다	.69		
36	내가 대처 할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신다	.69		
8	나의 마음이 편안해 질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신다	.67		
19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아시는 것 같다	.65		
50	내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신다	.65		
60	나와 함께 고민해 주시는 편이다	.64		
47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기분을 이해하시는 것 같다	.63		
32	나의 마음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삼으신다	.60		
1	나의 문제를 함께 살피고 해결책을 고민해 주신다	.59		
39	내게 과거의 행복하고 즐거웠던 일을 생각하라고 격려해 주신다	.56		
26	나의 기분이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	.56		
57	내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함께 짜 주신다	.53		
34	나의 기분을 알려고 않으시고 어머니 생각만 말씀 하신다		.70	
61	나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내 탓이라고 말씀하신다		.64	
48	나의 말이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신다		.63	
23	내가 얘기를 해도 다른 일을 하시거나 짐증을 하지 않으신다		.62	
41	내 기분은 무시한채 내 실수나 결점을 지적 하신다		.58	
16	‘신경 쓸 일이 아닌데 왜그러냐’ 라며 관심을 크게 보이지 않으신다		.55	
6	내게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화부터 내신다		.51	
44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농담을 하시거나 다른 얘기로 화제를 바꾸신다		.50	
27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 편이다		.48	
2	나의 얘기를 듣지도 않으시고 막연하게 ‘좋아지겠지’ 라고 하신다		.45	
56	불편할 정도로 나의 기분이 괜찮은지 자주 확인하시는 편이다			.72
52	무조건 내 편을 드셔서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운 때가 있다			.69
14	부담스러운 정도로 내 걱정을 많이 하신다			.63
63	나의 부정적인 상태를 보고선 당황해서 어쩔줄 몰라 하신다			.63
49	나의 기분이 어떤 상태인지 항상 과하게 신경을 쓰신다			.58
62	나의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초조해 하신다			.57
7	나의 기분을 자주 물어보셔서 힘들다			.53
51	내가 왜 그런지 묻지도 않은 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겠다고 하신다			.53
10	내가 어린아이가 된 느낌이 들 정도로 모든 말을 다 받아 주신다			.44
42	나보다는 어머니가 더 힘들어 하신다			.42
초기 고유값		9.83	5.25	1.81
설명변량		20.09	11.42	10.72
누적변량		20.09	31.50	42.22

의 KMO값은 .952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문항으로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16443.94($df=1953$,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요인분석이 가능한 공통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척도의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치 값(eigen value), 스크리 도표(scree plot), 누적분산비율, 해석가능성의 기준을 모두 고려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 값(eigen value)이 1이상을 충족시키는 요인은 6개가 추출되었으나 3개 요인을 제외하고는 설명변량이 미미하였다. 또한, 스크리 도표(scree plot)에서는 2요인과 3요인사이에서 고유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누적분산비율을 바탕으로 보면 3요인까지가 전체 분산의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3개의 요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요인의 수를 3으로 지정하고 요인구조를 산출하였다. 또한, 요인구조의 회전은 사각회전(direct oblimin)방법을 실시한 결과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해 직각회전(varimax)방법으로 재실시하였다(이순목, 2000).

분석 결과 후 요인 내 문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최대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이 .40 이상인 문항과 타요인과 .30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보이지 않는 문항을 추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해석 차원에서 다른 문항과 어울리지 못하는 문항을 제외시키는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36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들 3개 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42.2%로 나타났으며, 최종 요인구조와 요인부하량은 표 4

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이들 3개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 요인은 자녀가 부정적 감정을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자녀의 감정을 우선적으로 이해하며 수용해주고, 자녀가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코칭(coaching)해주는 반응과 관련되어 ‘감정코칭 반응’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자녀가 표출한 부정적 감정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비난을 하고 자녀의 문제 및 고통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반응과 관련되어 ‘감정무시 반응’이라고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자녀의 부정적 감정 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불편해 하면서 자녀를 유아 취급하며 지나치게 보호하고 돌봐주려는 반응과 관련된다. 이는 자녀의 부정적 감정 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인정하고 수용하기는 하지만 아동이 표현하는 정서수준 보다 과도한 불안과 불편함을 보이는 내용으로 여겨져 ‘과민 반응’으로 명명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2단계에서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가 다른 집단에서도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고, 본 척도의 요인구조 모형을 재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선 요인분석 결과에서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문항 양호도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3요인, 36문항이 선정 되었고 이러한 요인구조가 적합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Hoyle와 Panter(1995)가 추천한 Chi-square 검증, TLI(Tucker Lewi Index),

표 5.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적합지수	χ^2	df	χ^2/df	TLI	IFI	CFI	RMSEA
수용수준			3 이하	.90이상	.90이상	.90이상	.08이하
측정모델	1281.11	591	2.17	.90	.91	.91	.04
판정결과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좋은 적합

CFI(Comparative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살펴보고 그 값은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따르면 χ^2/df 의 값은 2.17로 본 연구의 모형이 주어진 자료에 대체로 부합되고 있

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사례수와 표본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도 지수는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TLI .90, CFI .91, IFI .91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90이상으로 측정모델에 적합한 결과이다(Bentler, 1990; Tucker & Lewis, 1973). RMSEA는 .05이하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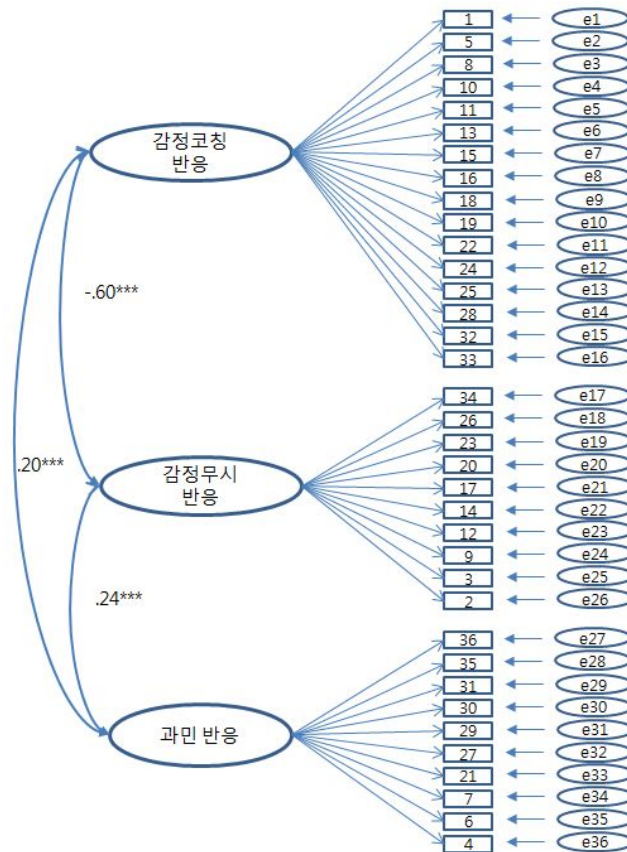


그림 1. 척도 3요인 모형

표 6. 잠재변인과 측정변인의 추정계수

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추정치 (B)	표준화추정치 (β)	표준 오차 (SE)	CR
요인 1 (감정코칭 반응)	1	1.000	.665		
	5	1.136	.738	.076	14.987***
	8	.944	.656	.070	13.508***
	10	1.079	.682	.077	13.992***
	11	.996	.674	.072	13.834***
	13	.966	.675	.070	13.857***
	15	1.064	.736	.071	14.951***
	16	1.035	.728	.070	14.806***
	18	.953	.711	.066	14.500***
	19	.946	.631	.072	13.050***
	22	.944	.734	.063	14.907***
	24	1.042	.721	.071	14.683***
	25	1.038	.696	.073	14.241***
	28	.875	.668	.064	13.725***
	32	.937	.621	.073	12.852***
요인 2 (감정무시 반응)	33	1.066	.717	.073	14.613***
	34	1.000	.744		
	26	.879	.657	.061	14.493***
	23	.412	.353	.054	7.620***
	20	1.022	.695	.066	15.382***
	17	1.054	.749	.063	16.670***
	14	1.042	.752	.062	16.733***
	12	.810	.637	.058	14.039***
	9	.750	.601	.057	13.193***
	3	1.001	.731	.062	16.240***
요인 3 (과민 반응)	2	.724	.599	.055	13.137***
	36	1.000	.587		
	35	.937	.583	.090	10.442***
	31	1.301	.751	.105	12.374***
	30	1.248	.679	.107	11.621***
	29	.990	.587	.094	10.494***
	27	1.143	.651	.101	11.294***
	21	.501	.266	.094	5.347***
	7	1.195	.573	.116	10.301***
	6	1.008	.513	.106	9.475***
	4	.872	.477	.097	8.939***

 $p < .001$

상적으로 좋은 적합도이고 .05와 .08사이이면 허용할만한 수준인데(Brown & Cudeck, 1993) 본 모델은 .04로 좋은 적합도에 해당된다. 이상의 결과들은 측정변수가 잠재 변수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개념 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김계수, 2010). 즉,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는 상이한 표집에서도 본 연구의 모형이 잘 부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척도의 3요인 모형에 대해서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잠재변인과 측정변인의 경로계수는 표 6에 제시하였다. 그림 1에 따르면 요인 간 상관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고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측정변수의 모든 C.R(critical ratio)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모든 측정변수가 잠재변수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추정계수가 .30이상일 때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에 따르면(김계수, 2010), 본 연구에서는 요인 3의 측정변인 21번을 제외한 나머지 측정변인이 .47에서 .73으로 나타내고 있어 양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구성 요인 간 상관관계

다음은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구성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척도는 각 구성 요인 간의 어느 정도 높지도 낮지도 않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관정도는 척도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한 지표가 될 수 있다(탁진국, 2007). 이와 관련하여 척도의 구성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구성요인 간의 상

표 7.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구성 요인 간 상관관계

	감정코칭	감정무시	과민
감정코칭	-		
감정무시	-.52***	-	
과민	.03	.38***	-

*** $p < .001$

관을 분석한 결과 요인 1과 요인 3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요인 1과 2($r = -.52$, $p < .001$)는 부적상관을 나타냈고, 요인 2와 3($r = .38$, $p < .001$)은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단, 요인 2와 3은 낮은 상관 계수 범위에 속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요인 간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상관 계수 값이 Berry와 Feldman(1985)이 제시한 다중 공선성 검증 기준($r < .80$)에 적합한 수치에 속한다.

2. 준거관련타당도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정서조절 방식 및 탄력성과의 상관을 분석하여 검사-준거 관련성(test-criterion relationships) 즉, 준거관련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먼저, 공인 근거(concurrent evidence)는 준거관련타당도의 한 종류로 검사점수와 준거로서 기준에 타당성을 검증받은 검사로부터 얻은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확인하는 타당

도이다.

정서관련 부모의 반응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양육반응성을 파악할 수 있는 행동으로(Zelman & Shipman, 1996),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를 고려하여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공인 근거를 검증하고자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요인들(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 과잉기대, 과잉간섭, 비밀관성, 방치, 학대)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에 따르면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와 양육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정코칭 반응은 애정($r=.70, p<.001$), 합리적 설명($r=.64, p<.001$), 감독($r=.41, p<.001$) 순으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과잉간섭($r=-.37, p<.001$), 비밀관성($r=-.32, p<.001$), 방치($r=-.34, p<.001$), 학대($r=-.30, p<.001$), 과잉기대($r=-.12, p<.001$) 순으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감정코칭 반응을 보일수록 긍정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반응이 적을수록 부정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감정 무시 반

응은 이와 반대로 방치($r=.60, p<.001$), 과잉간섭($r=.58, p<.001$), 비밀관성($r=.57, p<.001$), 학대($r=.56, p<.001$)순으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애정($r=-.52, p<.001$), 합리적 설명($r=-.47, p<.001$), 감독($r=-.30, p<.001$) 순으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감정 무시 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부정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반응이 적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민 반응은 과잉기대($r=.33, p<.001$), 학대($r=.32, p<.001$), 과잉간섭($r=.30, p<.001$), 방치($r=.24, p<.001$), 비밀관성($r=.17, p<.001$), 애정($r=.13, p<.01$) 순으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과민 반응의 경우는 애정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양육행동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척도가 양육행동 척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공인근거를 확인 하였다.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자녀의 정서조절 방식과 타력성

다음으로는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관련하여 자녀의 정서·사회적 능력에 관한 변인 간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본 척도의 준거관련타당도를 확인하

표 8.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와 양육행동 척도 간 상관관계 ($N=506$)

	감독	합리적설명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애정
감정코칭	.41***	.64***	-.32***	-.12**	-.37***	-.30***	-.34***	.70***
감정무시	-.30***	-.47***	.57***	.42***	.58***	.56***	.60***	-.52***
과민	.03	.06	.17***	.33***	.30***	.32***	.24***	.13**

** $p < .01$, *** $p < .001$

고자 한다.

아동 및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서혜린, 이영, 2008; Eisenberg & Fabes, 1992; Goleman, 1995; Morris et al., 2007; Yap, Allen, Leve & Katz, 2008)과 사회성 발달 및 적응적 행동(Fabes et al., 2001; Fabes et al., 2002)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준거변인 간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정서적 능력을 측정하는 정서조절 방식(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과 긍정적인 사회적응 능력을 측정하는 탄력성(resilience)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표 9와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감정코칭 반응은 능동추구 방식($r=.40, p<.001$), 지지추구 방식

($r=.30, p<.001$) 순으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회피 방식($r=.10, p<.05$)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감정코칭 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초기 청소년 자녀는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능동 추구 방식과 지지추구 방식을 많이 사용하며 회피방식은 덜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정무시 반응은 회피방식($r=.30, p<.001$)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며, 능동추구 방식($r=-.13, p<.01$)과 지지추구 방식($r=-.13, p<.001$)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감정무시 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자녀는 회피 방식을 많이 사용하며 능동추구 방식과 지지추구 방식은 덜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민 반응은 능동추구방식($r=.20, p<.001$), 회피방식($r=.20, p<.0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지지추구 방식과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표 9.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와 자녀의 정서조절 방식 간 상관 관계 ($N= 506$)

	능동추구 방식	회피 방식	지지추구 방식
감정코칭 반응	.40***	-.10*	.30***
감정무시 반응	-.13**	.30***	-.13**
과민 반응	.20***	.20***	.05

* $p < .05$, ** $p < .01$, *** $p < .001$

표 10.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와 자녀의 탄력성 간 상관관계 ($N= 506$)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	문제해결능력	부정적 감정의 인내	학업적 유능감	탄력성 총점
감정코칭	.50***	.45***	.40***	.34**	.50***
감정무시	-.30***	-.23***	-.20***	-.17***	-.25***
과민	.01	-.01	.05	-.01	.02

** $p < .01$, *** $p < .001$

어머니가 자녀에게 과민 반응을 보일 경우 청소년은 능동추구 방식과 회피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감정코칭 반응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r=.50, p<.001$), 탄력성 총점($r=.50, p<.001$), 문제해결능력($r=.45, p<.001$), 부정적 감정의 인내($r=.40, p<.001$), 학업적 유능감($r=.34, p<.01$) 순으로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감정무시 반응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r=-.30, p<.001$), 탄력성 총점($r=-.25, p<.001$), 문제해결능력($r=-.23, p<.001$), 부정적 감정의 인내($r=-.20, p<.001$), 학업적 유능감($r=-.17, p<.001$) 순으로 하위요인과 총점에서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과민 반응은 모든 하위요인 및 총점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가 초기 청소년의 정서조절 관련 변인과 사회적 적응 관련 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준거관련타당도를 확인하였다.

3. 집단 간 변별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가 정서·행동 문제를 보이는 집단과 비교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타는지에 대한 변별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집단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준임상집단에서 임상군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YSR의 각 하위영역 척도 총점의 84%tile을 기준점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대상 중에 이 기준에 적합한 대상이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 척도별로 평균치의 상위 30%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이는 임상군으로 정의할 수는 없기에 집단 명을 문제행동 집단이 아닌 내면화 문제 성향 집단, 외면화 문제 성향 집단, 문제행동 성향 집단으로 명명하고 하위 30%집단을 비교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각 하위요인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내면화 문제 성향 집단과 비교집단간에는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요인 중 감정코칭 반응($t=2.84, p < .01$), 감정무시 반응($t=-3.75, p < .001$)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내면화 문제성향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감정코칭 반응의 점수는 낮고 감정무시 반응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면화 문제 성향 집단과 비교집단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요인 중 감정코칭 반응($t=2.17, p < .05$), 감정무시 반응($t=-3.67, p < .001$)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외면화문제 성향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감정코칭 반응의 점수는 낮고 감정무시 반응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문제행동 성향 집단과 비교집단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요인 중 감정코칭 반응($t=3.35, p < .001$), 감정무시 반응($t=-4.53, p < .001$)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문제행동 성향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감정코칭 반응의 점수는 낮고 감정무시 반응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통

표 11. 문제행동 성향 집단과 비교집단 간 하위요인 차이 검증 (N= 506)

변인		감정코칭 반응 <i>M(SD)</i>	감정무시 반응 <i>M(SD)</i>	과민 반응 <i>M(SD)</i>
내면화 문제 성향	비교집단 (n=303)	50.69(8.84)	22.03(6.40)	22.16(6.31)
	내면화 문제 성향 집단 (n=202)	47.97(12.72)	24.45(8.05)	23.08(6.06)
	<i>t</i>	2.84**	-3.75***	-1.65
외현화 문제 성향	비교집단 (n=230)	50.23(10.14)	22.17(6.87)	22.17(5.93)
	외현화 문제 성향 집단 (n=275)	48.07(12.28)	24.57(7.87)	23.16(6.34)
	<i>t</i>	2.17*	-3.67***	-1.78
문제행동 성향 총점	비교집단 (n=209)	50.95(9.01)	21.77(6.47)	22.29(6.05)
	문제행동 성향 집단 (n=296)	47.72(12.66)	24.68(7.97)	23.01(6.25)
	<i>t</i>	3.35***	-4.53***	-1.30

* $p < .05$, ** $p < .01$, *** $p < .001$

적으로 내면화, 외현화 문제 성향, 문제행동 성향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과민 반응의 평균점수가 높긴 하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하위요인 중 감정코칭 반응과 감정무시 반응은 문제행동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 집단을 변별이 가능한 척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신뢰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선정된 하

위요인들의 내적 일치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감정코칭 반응은 .93, 감정무시 반응은 .87, 과민 반응은 .84로 내적 일치도를 보여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각 하위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의 문항-하위 척도 총점 간 상관도 모든 문항이 .30이상을 보였고 항목이 삭제된 경우의 내적 일치도에서도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이 서로 동질적이며 각 하위척도를 측정하기에 양호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를 타당화 하고자 하였고,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구인타당도, 준거관련타당도,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대해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성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적합한 요인 수와 문항을 추출하여 요인구조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요인분석 후 나타난 요인 수는 3개로 예비연구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요인별 구성된 문항들의 공통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차이가 보여 본 척도의 각 하위요인 명을 감정코칭 반응, 감정무시 반응, 과민 반응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예비연구 결과에서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았던 문항들이 포함된 채 명명되었던 요인 명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오지현, 2013)의 구성요소(감정코칭, 과민, 감정축소 반응)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녀의 발달시기에 따라 부모의 정서관련 반응에 차이를 보였던 선행연구(박광향, 2009; Eisenberg et al., 1998)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조작적 정의는 동일하더라도 발달적 요인으로 인해 이를 구성하는 하위유형에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각 발달시기의 어떠한 특징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왔는

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본 척도의 준거관련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공인근거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본 척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하위요인 중 감정코칭 반응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정서·사회성 능력을 키워주는 양육행동의 하위요인들과는 정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의 하위요인들과는 부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감정무시 반응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의 하위요인들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의 하위요인들과는 부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민 반응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의 하위요인들과 관련이 높지만 한편으로 애정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가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와 관련성을 확인하였고 이는 본 척도의 하위요인들이 구인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과 적절한 규제를 보일 때 친사회적 행동과 학업적 성취를 증진시키고 공격적, 비사회적 행동문제가 감소된다고 밝힌 연구결과(Demitrovich & Bierman, 2001; Maccoby, 2001)와 타인에 대한 적대감 및 거부, 낮은 자아 존중감, 정서적 무반응 등의 정서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결과(Khaleque &

Rohner, 2002)를 고려해 볼 때 감정코칭 반응은 자녀의 정서사회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와 반대로 감정무시 반응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 중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이 과민 반응과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의 우울, 불안, 강박, 편집증 등의 정서적 문제와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오동재, 전성일, 장환일, 1993), 과보호 양상이 많을수록 아동·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특히 불안에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들(김혜영, 2000; 문경주, 오경자, 2002)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과민 반응 또한 자녀의 정서 및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청소년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자녀의 정서사회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Katz & Hunter, 2007; Shortt et al., 2010; Yap et al., 2008)를 지지해준다.

셋째,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준거관련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청소년의 정서조절 방식과 탄력성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우선, 본 척도와 청소년의 정서조절 방식과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감정코칭 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자녀는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감

정무시 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자녀는 문제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함을 알 수 있었으며, 어머니가 과민 반응을 보일수록 적극적으로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방식과 더불어 문제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방식 또한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청소년의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Morris et al., 2007; Ramsden & Hubbard, 2002; Shortt et al., 2010; Valiente, Lemery-Chalfant & Reiser, 2007; Yap et al., 2008)를 지지해준다.

다음으로, 본 척도의 하위요인과 청소년의 탄력성 간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코칭 반응은 탄력성 총점 및 모든 하위요인(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 문제해결능력, 부정적 감정의 인내, 학업적 유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감정무시 반응은 탄력성 총점 및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감정코칭 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자녀는 자신과 타인을 신뢰함으로써 자존감이 높고 문제해결능력과 학업적 유능감 또한 높고 부정적 감정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도 높음을 의미한다. 이와는 반대로 감정무시 반응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의 탄력성과 관련된 능력이 모두 낮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지지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적응력 있고 유능한 사회적 행동유형을 발달시킨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Fabes et al., 2001; Fabes et al., 2002)을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하위요인이 청소년의 정서능력과 사회적 적응 능력을 예측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본 척도의 준거관련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반면, 과민 반응은 탄력성 척도의 모든 하위요인 및 총점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과민 반응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한 결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즉, 어머니의 과민 반응은 자녀에게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혼재 되어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과민 반응은 자녀의 부정적 감정 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불편해 하면서 자녀의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이해 없이 과잉보호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인데, 이는 자녀가 어머니와 공감을 형성하진 못하더라도 어머니가 자신에게 애정과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지각할 가능성 또한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청소년들은 어머니의 과민 반응을 관심과 애정으로 지각하는 경우와 과잉간섭과 과잉기대로 지각하는 경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교문화연구에서 나타난 한국 부모의 과보호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들(Kim & Choi, 1994; Rohner & Pettengil, 1985)에서 어머니의 과보호를 한국 청소년들은 어머니의 관심 및 돌봄으로 받아 들여 자녀의 정서·사회적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편, 과보호로 지각하여 청소년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신민진, 하은혜, 2010) 또한 나타났다. 그러므로 상관분석의 특성상 과민 반응과 긍정적 사회적 능력인 탄력성 간에는 흩어져 있는 분포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유의미

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겠으며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히 검증되고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가 문제행동 성향 집단과 비교집단을 얼마나 잘 구별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여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감정코칭 반응과 감정무시 반응은 내면화 문제 성향, 외현화 문제 성향, 문제행동 성향 집단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민 반응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가 지지적이고 공감적일 수록 청소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처벌적이고 비지지적일 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증진시킨다는 선행연구들(Katz & Hunter, 2007; Klimes-Dougan et al., 2007; Shortt et al., 2010; Stocker et al., 2007; Yap et al., 2008)과 일맥상통한다.

단, 과민 반응은 관련변인인 과보호적 양육 행동이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문경주, 오경자, 2002; 오동재 외, 1993)들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감정코칭 반응과 감정무시 반응과 같이 지지적, 비지지적 반응의 특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문제 행동 성향 집단과 명확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는 비교되는 결과이다. 이와 관련한 중재 변인들을 찾아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준거관련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감정코칭 반응과 감정무시 반응은 관련

변인들과 관련성이 일관되게 나타났지만 과민 반응은 영향력이 낮고 비일관적으로 나타나 타당성 검증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과민 반응과 관련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고자 문제 행동척도를 활용하여 문제행동 집단과 비교 집단을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대상의 청소년들은 검사도구의 임상 기준점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평균치에 근거한 상, 하위 집단으로 분류하여 척도의 하위요인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어 상담을 받고 있는 청소년 내담자 집단 또는 임상군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비교하는 검증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는 예비연구를 통해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내용을 구성하였고 예비조사 및 결과의 제한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반복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측면에서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초기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가 중요하지만 간과되고 있던 동향을 고려해볼 때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타당화한 것에 함의점이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서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모-자녀 관계에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학교나 상담현장에서 모-자녀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지도하거나 또는 상담 전문가의 개입과

중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계수 (2010). (AMOS 18.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김봉년 (2012). 아이의 친구관계, 공감력이 답이다. 서울: 조선앤북.
- 김의철, 박영신 (2008).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 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혜영 (2000).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 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 청구논문*.
- 노지영, 정윤경 (2010).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따른 아동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신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57-71.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문용린 (2008). 학교폭력 사태 및 대처방안.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학교 안전대책 세미나 자료집: 학교폭력 10대 트렌드*, 3-12.
- 박광향 (2009). 자녀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서정 (2004).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 및 정서조절 능

- 력 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혜린, 이 영 (2008).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 행동과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2), 33-56.
- 신민진, 하은혜 (2010).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59-477.
- 신주연, 이윤아, 이기학 (2005). 삶의 의미와 정서조절양식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35-1057.
-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2001). K-YSR 청소년 자기 행동 평가 척도.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 오동재, 전성일, 장환일 (1993).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년의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회지*, 32, 896-903.
- 오지현 (2013).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석빈 (1999).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와 선행사건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의 차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강이, 최인숙, 성미영 (2007). 부모의 정서사회화와 유아의 정서성 발달의 관계. *아동학회지*, 28(3), 187-199.
- 이순목 (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임전옥 (2003).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조절양식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옥분, 정순화, 임정하 (2007). 정서발달과 정서기능. 서울: 학지사.
- 조유진 (2005). 집단괴롭힘 목격과 피해 경험의 가해자 경로에 대한 중재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유진, 오지현 (2012).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정서수용태도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인간발달연구*, 19(1), 197-213.
- 주소영, 이양희 (2011). 청소년용 탄력성 (Resilience)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18(4), 103-139.
-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2011). 201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서울: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 탁진국 (2007).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s*.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AERA, APA, & NCME (1999). *Standard for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testing*.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rett. K., & Campos, J. (1987). Perspectives on emotional development II: A functional approach to emotios. In Ofosky, J. (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pp.555-556). New York: Wiley.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 238-246.
- Berry, W. D., & Feldman, S. (1985). Multiple regression in practice. Sage University Paper Series,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07-050,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Inc.
- Brown,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pp.25-40). Newbury Park, Ca: Sage.
- Demitrovich, C. E., & Bierman, K. L. (2001).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social adjustment: Multiple pathway of influence. *Merrill-Palmer Quarterly*, 47, 235-263.
- Dunn, J., Brown, J. R., & Bear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448-455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ar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Eisenberg, N., & Fabes, R. A. (1992). Emotion,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 S. Clark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4, Emotion and Social Behavior*(pp.119-150). Newbury park. CA: Sage.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 Fabes, R. A., Leonard, S. A., Kupanoff, K., & Martin, C. L. (2001). Parental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and soci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72(3), 907-921.
- Fabes, R. A., Poulin, R. E., Eisenberg, N., & Madden-Derdich, D. A. (2002).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CCNE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Marriage & Family Review*, 34, 285-310.
- Frijda, N. (1986). The emo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Gottman, J. M. (1997). The heart of parenting: How to raise an emotionally intelligent child. New York: Simon & Schuster.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3), 243-268.
- Gottman, J. M., & Nahm, E. Y. (2007).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서울: 한국경제신문.
- Hoyle, R. H., & Panter, A. T. (1995). Writting about structural equation model,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Thousand Oaics, Calif: Sage.
- Katz, L. F., & Hunter, E. C. (2007).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aholescent depressice symtomatology. *Social Development*, 16(2), 343
- Khaleque, A. M., & Rohner, R. P. (2002).

-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 rejec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 meta analysis of cross cultural and intracultural stud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54-64.
- Kim, U. C., & Choi, S. H. (1994).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Korea perspective. In P. M. Greenfield & R. R. Cocking (Ed.)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Klimes-Dougan B., Brand, A. E., Zahn-Waxler, C., Usher, B., Hastings, P. D., Kendziora, K., & Garside, R. B. (2007). Parental emotion socialization in adolescence: Differences in sex, age and problem status. *Social Development*, 16, 326-342.
- Kring, A. M., Smith, D. A., & Neale, J. M. (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dispositional expressiveness: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motional Expressivity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934-949.
- Mattanah, J. F. (2001). Parenting psychological autonomy and children's academic competence and behavioral adjustment in late childhood: More than just limit-setting and warmth. *Merrill Palmer Quarterly*, 47(3), 355-376.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Myers, S. S., & Robinson, L. R. (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 361-388.
- Ramsden, S. R., & Hubbard, J. A. (2002). Family expressiveness and parental emotion coaching: Their role i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 657-667.
- Rohner, R. P., & Pettengi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Shortt, J. W., Stoolmiller, M., Smith-Shine, J. N., Eddy, J. M., & Sheeber, L., (2010). Maternal emotion coaching, adolescent anger regulation, and siblings' externalizing sympto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1(7), 799-808.
- Siegel, D. J., & Hartzell, M. (2004). *Parenting from the inside out*. New York: Penguin.
- Stocker, C. M., Richmond, M. K., Rhoades, G. K., & Kiang, L. (2007). Family emotional processes and adolescents' adjustment. *Social Development*, 16, 310-325.
- Strayer, M., & Roberts, W. (2004). Children's ang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empathy; Relations with parents' empathy,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arenting practices, *Social Development*, 13, 230-254.
- Trumpeter, N., Watson, P. J., O'leary, B. J., & Weathington, B. L. (2008). Self-functioning and perceived parenting: Relations of parenting empathy and love inconsistency with narcissism, depress, and self-esteem.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9, 51-71.
-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 1-10.
- Valiente, C., Lemery-Chalfant, K., & Reiser, M. (2007). Pathways to problem behaviors:

- Chaotic homes, parent and child effortful control, and parenting. *Social Development*, 16, 249-267.
- Yap, M. B. H., Allen, N. B., & Ladouceur, D. (2008). Maternal socialization of positive affect: The impact of invalidation on adolescent emotion regulation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Child Development*, 79(5), 1415-1431.
- Yap, M. B. H., Allen, N. B., Leve, C., & Katz, L. F. (2008).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Socialization of Adolescent Affect: The Moderating Role of Adolescent Tempera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5), 688-703.
- Zelman, J., & Shipman, K. (1996). Children's expression of negative affect: Reason and methods. *Developmental Psychology*, 32(5), 842-849.
- 1 차원고접수 : 2013. 04. 12.
수정원고접수 : 2013. 05. 17.
최종게재결정 : 2013. 06. 04.

The Validity of a Scale for Measuring Mother's Reaction to Adolescent's Negative Emotions

Oh, Ji hyun

Samsung Social Mental Health Institut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measures of a mother's reaction to adolescent's negative emotions. The validity of the scale is presented in a series of studies. Through preliminary research, the first preliminary items were composed and an initial survey of 498 middle school students in 1th - 3th grades was carried out.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ree principal factors and 36 items were revealed to be most suitable. The factors of the scale consist of emotion-coaching-reaction, emotion-disregard-reaction, and emotion-minimizing-reaction. In addition the reliability analysis and validation analysis of the scale, was conducted, making use of a survey of 506 students. The internal coherence reliability was also verified. There were four additional verifications to validate the scale. Firstly, for the evidence based on internal structur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firmed the reliability of the factor structure of the scale. Secondly, in order better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correlation analysis was used and as a result, indicated that the overall scale and each of its subfactors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the scale of the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 child rearing attitudes of the mother. Additionally, in term of prediction validity the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subfactors of the scale were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and resilience. These results verified that the scale can be utilized as a predictive scale of the abilities of adolescents to regulate their emotions and their overall social resilience. Lastly, discriminant validity was found to exist between the problem behavior groups and non-problem behavior groups which ensured the validity of the scale.

Key words : emotion-socialization, mother's reaction to adolescent's negative emotions, emotion-coaching-reaction, emotion-disregard-reaction